

# 蘇聯의 東北亞政策

金 容 九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目 次>

- |                                  |                        |
|----------------------------------|------------------------|
| I. 序論 — 問題의 範圍—                  | II. 소련의 東北亞政策          |
| II. 소련의 外交政策理論                   | 1. 經濟的 側面              |
| 1. 소련의 對資本主義國家 外交 政策의 理論 — 平和共存— | 가. 시베리아 開發과 소련의 東北亞政策  |
| 가. 20次 黨大會와 소련의 社會科學             | 나. 太平洋 諸國과의 貿易關係       |
| 나. “平和共存”의 用語                    | 2. 軍事的 側面              |
| 다. “平和共存”의 內容                    | 3. 政治的 側面              |
| 2. 소련의 第3世界 外交政策의 理論             | IV. 소련의 東北亞政策 展望과 韓 半島 |

## I. 序論 — 問題의 範圍—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의 理論의 役割은 自由主義世界에서의 그것과 判異한 性格을 갖고 있다<sup>1)</sup>. 名分과 利益은 相互 不可分離의 關係에 있어서, 소련 外交政策을 分析함에 있어 우선 그 名分의 世界를 檢討해야 될 것이다.

소련과 資本主義國家와의 關係를 규율하는 名分을 그들은 平和共存原則에 서 찾고 있다. 그들의 平和共存理論은 실은 맑스主義의 여러 體制들, 즉 國家와 法의 階級性, 階級鬭爭과 歷史의 解釋, 戰爭과 平和의 問題, 世界勞動 運動의 國際的 團結과 世界革命問題들과 密接히 關聯되어 있는 것이며, 諸

1) “Teoriya” in *Filosofskii slovar* (m. 1zd-vo Politicheskoi Literatury, 1972) s.408—409. (“理論”, 哲學辭典, 政治文獻出版社), 勿論 共產黨의 基本路線問題가 아닌 枝葉的인 問題에 대하여는 소련 學者들 간에 深刻한 見解差異와 그 간의 論爭이 存在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에서 發表된 特定한 研究를 弄, 소련 外交政策에 관한 公式的인 見解로 착각하고, 引用하는 歐美學者들의 研究는 問題點을 안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國際政治의 基本單位는 무엇이나는 基本問題에 대하여도 現在 소련에서는 모스크바大學의 Tunkin, G.I. 교수를 中心으로 하는 學說과 소련 外務省 附設 國際關係研究所의 Kozhevnikov, F.I., Zadorozhny, G.P. 등의 學說이 對立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들의 見解對立에 대하여는 拙著: 蘇聯 國際法理論 研究(一志社, 1979), pp.67—77.

國家가 平和的으로 共存한다는 단순한 意味는 결코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平和共存理論은 戰爭可避論에 立脚한 國際的인 次元에서의 階級鬭爭이며 결코 現狀維持와 同義語는 아닌 것이다.

現在 그들이 主張하는 平和共存原則은 戰爭可避論에 立脚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理論의 源流를 레닌에서 찾고 있지만 基本的으로는 第20次 黨大會以後의 理論인 것이다. 이런 點에서 소련學者들도 2次大戰 直後까지의 平和共存과 그以後의 平和共存을 區別하고 있는 것이다<sup>2)</sup>.

本 研究에서는 그들의 資本主義社會와의 關係에 관한 名分으로서의 平和共存을 外交政策의 原則으로서의 平和共存, 國際政治事實으로서의 平和共存, 그리고 國際法原則으로서의 平和共存이란 세 側面으로부터 分析한다<sup>3)</sup>. 그 가답은 歐美學界의 大部分의 研究가 平和共存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세가지 側面을 區別하여 分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混亂을 惹起하고 있는 연유에서이다. 이러한 平和共存의 分析은 그들이 主張하고 있는 아시아 集團安全保障의 理論的인 根據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本 研究에서는 소련과 第3世界와의 關係에 관한 理論을 檢討한

2) AN SSSR, Institut Gosudarstva i Prava (소련科學아카데미, 國家와 法研究所) *Kurs Mezhdunarodnogo Prava*, T.I. (國際法 教程 第一卷), 1967, s.83: Tun-kin, G.I.: "Le Droit International de la Coexistence Pacifique," *Mélanges offerts à H. Rolin* (Paris, 1964), p.410.

3) 소련學者들은 반드시 이런 用語를 使用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도 그런 側面에서 平和共存을 區分하고 있다고 본다. 1962年 第5次 소련國際法學會會議에서 Blishchenko, I.P.는 平和共存問題分析에 있어서는 歷史的 必然性, 人類發展의 合法則性으로서의 平和共存과 國家政策으로서의 平和共存이란 두가지 側面을 區別해야 된다고 말하고 소련의 國際法學 研究에 있어서는 특히 平和共存政策의 觀點에서 國際法的 現象과 國際生活의 現象들을 分析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런 現象들은 人類發展의 合法則性으로서의 平和共存이란 觀點에서 보아야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Sovetskaya Assotsiatsiya Mezhdunarodnogo Prava: *Sovetskii Ezhegodnik Mezhdunarodnogo Prava* (소련 國際法學會 編: 蘇聯 國際法年鑑). 1962, s.239) 이 點은 本 研究에서 말하는 國際政治事實으로서의 平和共存이란 側面의 重要性을 그가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또 1968年 同會議에서는 平和共存이란 ① 社會主義國家와 資本主義國家 간의 國際關係發達에 있어서의 客觀的 合法性 ② 이들 國家간의 政治的 法的인 問題, ③ 國際法 原則등의 側面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Ibid.*, s.340)

그리고 前記 第5次 會議에서 Levin, D.B., Bobrov, R.L., Molodtsov, S.V. 그리고 Movchan, A.P. 등 모두가 現代國際法原則으로서의 平和共存, 平和愛好 國家의 對外政策으로서의 平和共存原則, 그리고 레닌이 말하는 歷史的 時期的 定義로서 社會主義革命이 全世界의 次元에서 達成되지 않은 結果 불가피하게 된 平和共存 등을 混同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Ibid.*, 1962, s.239)

다. 소련 外交政策에 있어서 第3世界가 問題된 것은 20次 黨大會以後에 비롯된 것으로서 이들과의 關係에 관한 名分도 同黨大會以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現在 소련學界에서 가장 研究가 不振한 分野에 屬하고 있다<sup>4)</sup>. 50年代 末까지의 그들의 見解는 소련과 第3世界 關係는 基本的으로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原則에 立脚한다고 主張하였는데<sup>5)</sup>, 이런 見解는 실은 후르시초프의 冒險主義의인 第3世界政策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理論이 第3世界에 屬하는 諸國家에 惡影響을 미친다고 하여 60年代에 들어오면서 修正을 보게 된다. 즉 社會主義諸國이 新生諸國에 대하여는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原則에 立脚하지마는 新生諸國이 社會主義國家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럴 必要는 없다는 것이었다<sup>6)</sup>. 그러나 國際關係에 있어서 어떤 原則이 國家에 따라서 相異하게 適用된다는 이런 非論理的인 理論이 그대로 堅持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22次 黨大會에서 社會主義國家와 第3世界의 新生諸國과의 關係는 特殊한 性格이 있는 것이라고 指摘된 以來로 소련學者들은 이들 關係는 基本的으로 平和共存原則이 支配되고 이 위에 無私한 援助의 原則이 添加된다고 主張하고 있다<sup>7)</sup>. 그러나 이런 名分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第3世界政策은 高度의 軍事的인 性格을 띤 特定한 國家에 局限되어 온 背景을 本 研究는 檢討할 것이다.

이러한 理論的인 分析위에서 本 研究는 소련의 東北亞政策의 現實世界를 分析한다. 사실 소련의 東北亞政策이란 論理的인 操作에 不過하다. 強大國으로서의 소련은 世界政治의 틀 속에서 東北亞政策을 構想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本 研究에서는 소련의 東北亞政策을 經濟, 軍事, 政治的인 側面에서 分析하지만 이것 또한 論理的인 世界이지 現實의 世界는 아닌 것이다. 現實의 世界에서는 經濟, 軍事, 政治가 分離될 수 없는 것이고 論理的인 敘述의 必要上 이런 側面으로 區分하여 檢討한다.

4) Tunkin, G.I.; "The 22nd Congress of the CPSU and the Tasks of Soviet Science of International Law," *Soviet Law and Government*, I : 2 (Winter 1962-63), p.26.

5) Korovin, E.A.: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1958, No.12, pp.29-30.

6) Korovin, E.A.: "La Charte des Nations Unies et la Coexistence Pacifique," (SEMP, 1960) in *L'URSS, Droit, Economie, Sociologie, Politique, Culture* (Paris, 1964), p.515.

7) Tunkin, G.I.: *Droit International*, Paris, A. Pedone, 1965, p.23, 註 ②에 인용한 책 p.129.

먼저 소련의 東北亞政策에 있어서 經濟的인 側面은 시베리아開發과 東北亞諸國과의 經濟關係로 나누어 본다. 이 兩者는 서로 關聯되어 있는 것이겠으나 80年代에 들어오면서 소련의 積極的인 東北亞政策을 展望할 수 있는 것은 시베리아와 소련領 極東의 開發問題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이 問題는 東北亞 國際政治秩序 展望에 重大한 要因이 아닐 수 없다.

시베리아는 西시베리아, 東시베리아 및 소련領 極東등의 經濟區域으로 區分되고 行政區域으로는 모두 RSFSR에 屬하고 있다. 이 시베리아地域의 開發이 소련經濟의 死生에 關係되고 있는데 이 點은 에네르기問題만을 보더라도 明白하여 진다. 먼저 原油, 天然가스, 石炭등의 소련 全體 生産量中에서 시베리아 地域이 차지하고 있는 比率를 보면 1960年の 1.10%, 0.7%, 28.0%에서 1970년에는 각각 7.6%, 5.6%, 31.9%로 증가하였고 1975年の 경우 30%, 13%, 34%로 격증하였으며 1980년에는 그 比率이 각각 48—50%, 30—40%, 38%로 增加될 計劃으로 있다<sup>8)</sup>. 뿐만 아니라 現行 5個年 經濟計劃 期間에 있어서 石油와 天然가스 生産의 增加量 全體, 石炭採掘量의 增加量의 90%를 우랄 以東地域이 擔當해야할 實情에 있는 것이다<sup>9)</sup>. 또한 Dienes, L 교수의 추정에 의하면 1980年 以後로는 소련의 歐洲地域과 우랄地域은 必要한 에네르기의 60%만을 自體地域에서 生産하게 될 것이고, 1980年代 末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40%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事情은 소련의 歐洲地域에 있어서 에네르기生産이 下降期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소련의 東部地域으로부터의 에네르기 搬入이 소련經濟의 關鍵임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現在 소련의 에네르기 消費地域의 分布는 우랄地域과 코카사스地域 그리고 소련의 歐洲地域에서 에네르기 全生産量의 4/5를 消費하고 있으며 Volga Kara 河 以西地域에서만도 그 55%를 消費하고 있다. 그런데 問題는 이 地域에서는 數十年 以來의 探查로 말미암아 그 cost가 增加하고 있을 뿐 아니

8) Smith, A.B.: "Soviet Dependence on Siberian Resource Development," in *Soviet Economy in a New Perspective: A Compendium of Papers submitted to the Joint Committe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Dec. 14, 1976), p.482.

9) Slavinsky, B.N.: "Siberia and the Soviet Far East within the Frawework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Recations," *Asian Survey*, Apr. 1977, p.312.

10) Dienes, L.: "Soviet Energy Resources and Prospects," *Current History*, Mar. 1978, p.46.

라, 그 埋藏量도 限界點에 到達하고 있어서 소련의 아시아 地域으로부터의 에네르기 搬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련의 에네르기 問題에 있어 가장 큰 問題의 하나는 (그 生産地와 需要地가 遠距離에 處하여 있어서) 그 輸送에 있지마는 시베리아 開發이 소련經濟의 將來를 決定할 만큼 重大한 問題인 것은 分明하다. 이 點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련의 歐洲地域이 全에네르기 生産量의 80%를 消費하고 있는데 우랄 以東地域은 第1次에네르기 埋藏量의 80%를 保有하고 있다. ② 소련의 歐洲地域에서 生産되는 에네르기는 주로 東歐諸國의 需要에 應해야 한다. ③ 소련의 歐洲地域의 에네르기 埋藏量은 高갈되고 있으며, 그 開發費用은 보다 더 增加하고 있다. ④ 西시베리아의 龐大한 埋藏量으로 부터의 石油生産增加는 5—6年 以內에 감소될 것이고 또 다른 油田의 開發을 東시베리아나 소련의 極東地域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⑤ 소련은 經濟開發에 있어서 西方의 技術과 裝備가 必要하여 그 輸入이 不可避하여 1975年의 경우, 貿易赤字는 60億 弗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시베리아의 石油와 가스, 其外 地下資源의 輸出로서 貿易赤字를 補填할 수 있다. ⑥ 시베리아의 資源과 電力에 의한 化學工業과 其外의 工業發展은 西方으로 부터의 輸入依存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點등이다<sup>11)</sup>.

이러한 시베리아開發에 있어서 또 하나 重要한 것은 그들이 「今世紀의 最大事業」이라고 宣傳하고 있는 Ust-Kut 와 Sovetskaya Gavan 을 연결하는 BAM 鐵道の 建設이다. 現在까지 計劃된 部分을 모두 부설하였다고 그들은 報道하고 있는데 그 完工目標年度는 1983年으로서 2年간의 試驗運行을 거친 후에 商業的인 輸送은 1985年에 비롯된다고 한다<sup>12)</sup>.

그런데 BAM 은 現存의 시베리아 橫斷鐵道에서 200km 以北에 位置하고 있어서 既存鐵道가 中共軍에 의한 차단의 危險이 存在하고 있는데 反하여 BAM은 이런 취약점이 없을 뿐 아니라 軍輸送能力을 현저히 增強시킬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BAM은 이러한 軍事的인 側面 以外에 시베리아 經濟開發과 密接히 關係되어 있는 經濟的인 目的이 主要하다고 볼 수 있다.

BAM의 目的은 첫째 輸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베리아 地域에서의 南北間의 輸送은 河川輸送에 의존하고 東西의 輸送은 BAM이 擔當한다는 것

11) Smith, A.B.: *art. cit.* p.480.

12) Shipler, D.K.: "Siberian Rail Project Dramatizes Soviet Industrial Power," *New York Times*, Mar. 9, 1978.

이다<sup>13)</sup>.

다음은 BAM의 建設로서 그 鐵道를 沿하여 龍대한 TPK(Territorial Production Complexes)의 建設이 隨伴된다는 點이다. 主要한 TPK를 보면 8次 5個年 經濟計劃으로부터 시작된 Bratsk-Ust-Ilimsk TPK, Udogan 採鑛 TPK, 南 Yakut TPK, 그리고, 計劃中인 TPK로서는 Lena 河上流 TPK, 北 Baikal TPK, Tynda 를 中心으로 하는 西 Amur TPK, Geya-Svolodny TPK Urgan TPK, Komsomolsk na Amure를 中心으로 하는 Amur 下流 TPK, 太平洋沿岸의 소프가니 TPK 등으로서, BAM 自體가 하나의 巨大한 「綜合 企業體」가 된다는 것이다<sup>14)</sup>.

이와 같은 BAM이 完工될 경우에는 시베리아의 資源과 그의 에네르기 多 消費生産品이 太平洋諸國에 輸出하게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시베리아의 工業製品이 世界市場에 進出할 여러 方法이 소련領 極東을 거쳐 展開될 것을 그들은 展望하고 있다. 시베리아와 極東의 輸出基地化에 특히 注目되는 것은 合成物質, 鑛物肥料, Pulp 등등 에네르기 多量消費化學製品이며 이에 의하여 시베리아와 極東의 生産的 連結이 強化되고 各地域의 企業이 決定된다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이런 시베리아 經濟開發을 計劃대로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難關이 있으며, 무엇보다 資本, 技術 및 勞動力不足이란 심각한 問題들이 있으며 이런 要素가 소련의 東北亞政策 展望에 決定的인 經濟的인 側面인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이런 經濟的인 要素를 分析하고 소련의 東北亞政策에 있어서 軍事的인 側面을 檢討한다. 여기에 Khavarovsk 에 司令部를 두고 있는 소련 極東軍管區와 더불어 Vladivostok의 太平洋艦隊의 檢討가 重要할 것이다.

소련 海軍은 現在 발틱 艦隊, 黑海艦隊, 北海艦隊, 카스피안 小함대와 더불어 太平洋함대로 構成되고 있는데 太平洋함대는 발틱艦隊에 比肩할 位置로 그 主要性이 높아질 뿐 아니라 現在 소련의 海軍司令部에 要職을 擔當하고 있는 提督들은 大部分이 太平洋함대에서 勤務經驗을 가진 者들이다<sup>16)</sup>

13) Aleksandrov, V.A.: “바ム-未來への道一,” 極東의 諸問題, 1977年 12月, p.10.

14) *Ibid.*, p.14.

15) Nekrasov, N.N.: “第10次 5個年 計劃と ソ連邦의 東部地域”, 極東의 諸問題, 1976年 9月, p.7.

16) Tan Su-cheng: The Expansion of Soviet Seapower and the Security of Asia, Taipei, *Asia and the World Forum*, 1977, p.34의 圖表 參照.

太平洋艦隊 司令官下の 海軍은 Vladivostok, Sovetskaya Gavan, 그리고 Petropavlosk에 集中된 3개 group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正確한 編成과 構成에 대하여는 여러 情報들이 存在하고 있으나<sup>17)</sup>, 그것이 1960年代 末부터 계속 增強되어 65年の 海軍力을 거의 3배 增強시켰다고 傳하여지고 있다<sup>18)</sup>. 하여간 이런 事情은 韓國戰爭 以來 계속 감소되고 있는 美國 太平洋함대의 隻數와는 對照를 이루고 있다<sup>19)</sup>. 그런데 한가지 注目되는 것은 소련 太平洋艦隊에는 아직 航空母艦이 配置되고 있지 않은 點이다. 소련 海軍에 있어서 最初의 航空母艦은 1976年 7月 地中海에 나타났으나 한 研究에 의하면 現在 소련의 20隻의 航空母艦을 建造할 計劃으로 있으며<sup>20)</sup> 太平洋艦隊에 그것이 配置될 경우 重大한 問題가 아닐 수 없는데 1980年代 初에는 그런 事情이 現實化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太平洋艦隊의 增強과 더불어 注目되는 것은 東海의 法的地位 問題이다. 沿岸國의 數가 制限되어 있고 國際航路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入口가 比較的 地理的으로 狹少하면서 소련의 國家安保에 重大한 海域으로서 발틱, 黑海, 北海의 一定地域 그리고 東海를 그들은 1950年代 初부터 소위 「封鎖水域」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 法的地位에 대하여는 商船인 경우, 空海와 別다름이 없겠으나 非商船인 경우에는 沿岸國들의 事前承認을 얻어야 그 出入이 可能하다는 것으로서<sup>21)</sup> 東海의 排他的인 支配를 目的으로 하고 있는 見解이며 이 問題는 將次 韓·소간의 爭點으로 擡頭될 것이다.

소련의 東北亞政策에 있어서 上述한 經濟的 軍事的인 側面의 檢討와 더불어 本 研究에서는 그 政治的인 面을 分析한다. 그것은 곧 1969年 以來 主張되어 오고 있는 아시아集團安全保障制度에 관한 소련의 構想과 政策의 分析

17) *Ibid.*, p.26.

18) "Moscow: Drawing the Asian Battleline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 31, 1975, p.29.

19) 이런 소련의 太平洋함대의 增強이 美國에는 전혀 위험이 될 수 없다는 Turner CIA 局長의 證言은 *Allocation of Resources in the Soviet Union and China: 1977. Hearings before the Subcommittee on Priorities and Economy in Government of Joint Economic Committee Congress of the U.S. 95th Congress Part III*. 1977, pp.148-9, pp.156-7 參照.

20) Tan Su-cheng: *op. cit.*, p.32. 그러나 이런 計劃의 經濟的인 不可能性에 대하여는 Hudson, G.E.: "Soviet Naval Doctrines and Soviet Politics, 1953-75," *World Politics*, XXIX-1 (Oct. 1976), pp.111 以下

21) Butler, W.E.: *The Soviet Union and the Law of Sea*. The Johns Hopkins Press, 1971, pp.121-133.

에 重點을 둔다.

그 構想은 아직 一般的인 政治目標에 不過하고 이를 위한 具體的인 實踐 方案이 公式的으로 提示된 것은 없다. 단지 이 構想의 基本核心의 하나가 反中共 包圍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當然한 것이겠으나 그것은 그들의 平和 共存理論의 아시아的인 縮少板이라고 볼 수 있으며, 基本的으로 東北亞에 있어서 現狀維持에 있다는 點을 分析한다. 이와 관련하여 注目되는 것은 1971年 日本을 訪問하면서 問題를 부연하여 說明한 Zadorozhny, G.P. 교수의 會見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아시아集團安全保障機構에 美소는 勿論 臺灣, 韓國, 越南 등이 參與해야 된다고 말하여<sup>22)</sup> 이 構想과 韓國을 결부시켜 말한 最初의 發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Zadorozhny, G.P.는 단순한 교수가 아니라 소련 外務省 附設 國際關係研究所의 中堅教授일 뿐 아니라 그의 理論이나 見解가 현재 소련 學界에서 急進的인 學派에 屬하고 있다는 點에 注目해야 될 것이다.

위에서 든 바와 같이 本 研究에서는 소련의 東北亞政策에 名分을 주고 있는 理論世界를 分析하고 그 東北亞政策의 具體的인 現實을 經濟, 軍事, 政治的인 側面으로 檢討하면서 80年代에 들어오면서 보다 더 積極化될 소련의 東北亞政策이 韓半島問題에 끼칠 影響을 展望한다. (未完成)

22) Gregory, G.: "USSR-China: Rhetoric Unrewarded,"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 17, 1971, p.11.